

*b 와 YMCA 가 함께하는 RaonAtti

SL4

vol.1

첫-, [1]만남 [2]느낌 [3].....



RaonAtti 4th Batch Monthly Report

SL4 첫 발을 내딛으며...

SL4란? 국민은행과 한국 YMCA가 함께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 '라온아띠 4기 스리랑카 팀 (RaonAtti Sri Lanka 4th Batch)'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강민지(루와니)



그들에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스리랑카를 품었다.

김보람(히루니)



콜롬보에 세 번 갔다. 처음에 갈 때에는 밴을 탔다. 두 번째 갈 때에도 밴을 탔다. 세 번째 콜롬보로 가는 길, 101번 버스를 탔다. 밴은 왕따시 편하지만 버스는 왕따시 덜컹거린다. 밴을 탄 우리는 외국인일 뿐이지만 버스를 탄 우리는 이들과 함께 사는 이웃이다. 밴에는 우리밖에 없지만 버스에는 스리랑카가 있고 이곳 사람들이 있다. 나는 밴보다 버스가 좋다!

정동민(다밋)



처음 만난 다름 속에서, 익숙한 같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첫발,, 잘 내디뎠다 :)

한상진(수퐁)



걱정과 불안함을 더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는 기쁨과 환희라는 단어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

처음! 그 설렘과 두려움.

그 설렘과 두려움이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때, 난 그저 미소만 지을 뿐.

허소현(사그리)



SL4 9월의 기록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6 출국캠프(~8) 	7 	8 -스리랑카 출국발	9 -스리랑카 도착 -welcome ceremony	10 -오리엔테이션 -모라투와 대학교 전시회 -강보기 -childrem club	11 -모라투와 씨티투어 	12 -대청소
13 -Diagorolla garden 수업보조 (강가의 아이들) -강보기 -RaomAtt committee Meeting(RCM)	14 -나무 돌보기 -싱할라어 수업 -금 볼롬보 행 	15 -한국 대사관 방문 -볼롬보 씨티투어 	16 -나무 돌보기 -싱할라어 수업	17 -나무 돌보기 -책,결상 페인트칠 -YWCA인턴 미팅 -childrem club 	18 -나무 돌보기 -태권도 수업 -Pamadura Beach 코코넛~ 	19 -모라투와 Elder's home 봉사활동 -대청소
20 -나무 돌보기 -가곡, 목공소 방문 -Diagorolla garden 수업보조 -RCM	21 -나무 돌보기 -Lumawa Gov. Hospital(LGH) 방문	22 축석 & Poya Day -Youth club 크리켓 매치 -축석 파티	23 -Korean class 수업 준비 -싱할라어 수업	24 -나무 조각 작업실 방문 -childrem club -Korean class	25 -태권도 수업 -Book Fair @ 볼롬보 방문 	26 -대청소
27 -나무 돌보기 -꽃 나무 심기 -Diagorolla garden 수업보조 -강보기 -RCM 	28 -비자 연장 -강보기 	29 -Herbal Drink 제공 -싱할라어 수업 	30 -LGH 봉사활동 (페인트 칠) 			

RaomAtt

“Are you happy?”

스리랑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묻는다. 사실 우리에게 일상의 행복은 어느 순간 특별한 것이 돼 버렸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KB-YMCA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 스리랑카 4기(이하 스리랑카팀)가 모라투와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얘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스리랑카팀은 지난 9월 9일 00시 30분에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여섯 나라로 흩어진 파견팀 중 두 번의 경유를 거치며 가장 먼 거리를 날아왔기에 육체적으로 지쳤었지만 두 팔 벌려 함박웃음으로 우리를 반겨주던 모라투와 YMCA(이하 모라투와 Y) 원로 위원, Nihal과 Godfrey 그리고 사무총장 겸 현지 코디네이터인 Sampath이 있었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스리랑카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스리랑카팀은 모라투와 ‘명예 시민’ 되기를 시작했다.

스리랑카팀은 101번 버스를 타고 10분 거리인 모라투와 Y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8시 30분까지 출근한다. 처음에는 달리는 버스 승·하차가 자연스러운 이곳 문화가 낯선 것을 넘어서 위험해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다. 물론,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아유보완, 이스뚜디, 바하!”를 외치는 우리에게 운전사 아저씨와 버스비를 받는 아저씨의 무한한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물론이다.

현재 스리랑카는 우기이다. 어느 날 출근 길,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다. 버스 안에서 우왕좌왕하는데 어느새 내려야 할 곳에 다다랐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해 무작정 달려 모라투와 Y 건물 안으로 들어섰는데, 순간 모두의 머리를 스친 생각 하나, ‘왜 이렇게 빨리 도착했지?’. 평소 같으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도 건너고 5분 정도는 걸어야 비로소 모라투와 Y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버스 아저씨들이 소나기에 우산 하나 없이 당황한 우리들을 위해 정류장을 지나쳐 최대한 모라투와 Y 가까운 곳에 내려준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아산에 이어 모라투와에서도 지역 사람들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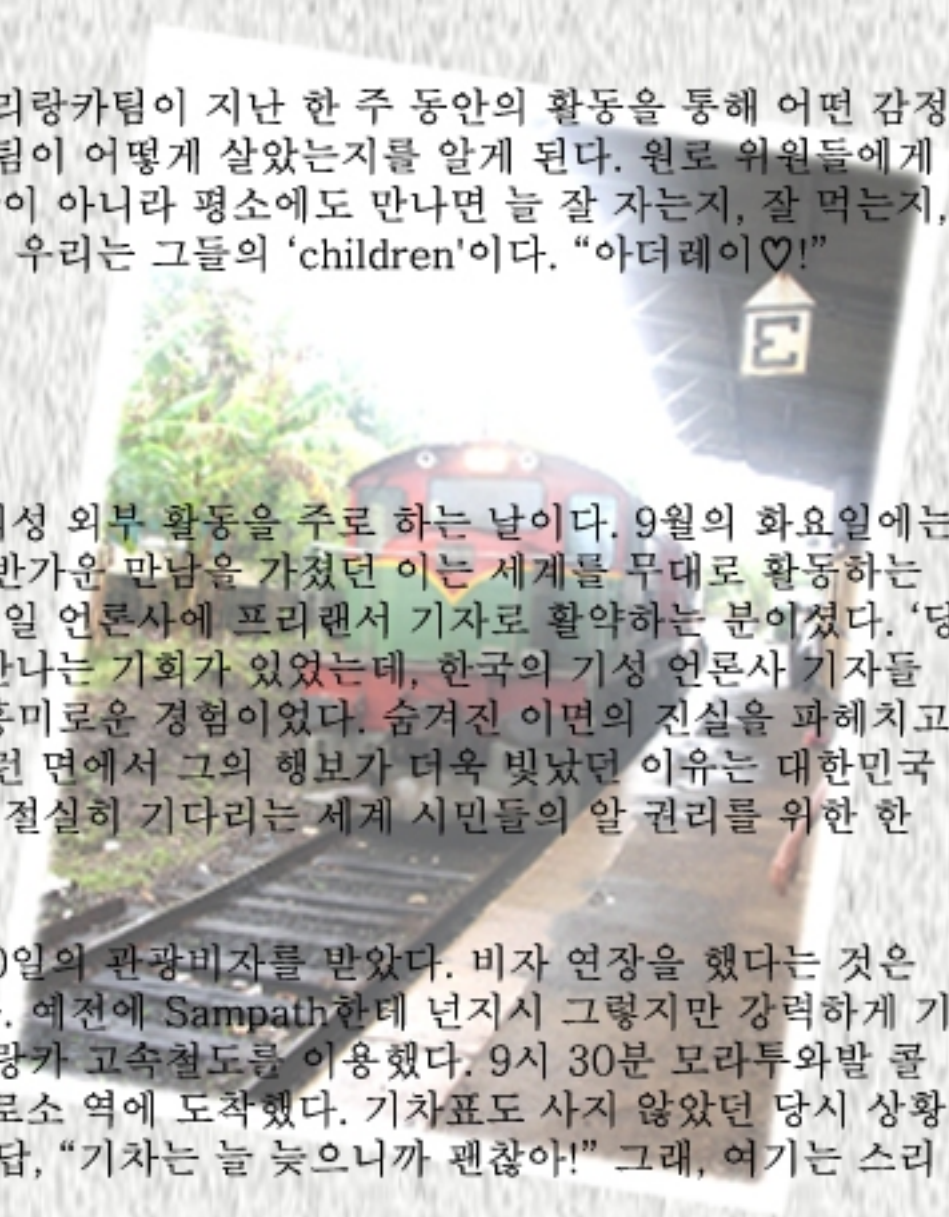
모라투와 Diagorolla라는 지역의 아동들과 공부를 한다. 강가에 자리한 백 가구 정도의 빈민촌인데 스리랑카는 대학 교육까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령별로 나눠진 다섯 개의 반에 스리랑카팀 팀원들은 각 수업의 보조 교사로 활약하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경계심이 나 거부감보다 무조건적인 애정을 보여준다.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맞추고, 서로를 안아 부비고, 크게 하하하 웃는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진심이다.

저녁에는 원로 위원들이 참석하는 라온아띠 회의가 열린다. 스리랑카팀이 지난 한 주 동안의 활동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주간 보고서를 제출하면, 원로 위원들은 스리랑카팀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된다. 원로 위원들에게 우리의 행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비단 월요일 회의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만나면 늘 잘 자는지, 잘 먹는지, 잘 지내는지 소소한 일상을 묻고 우리의 대답에 귀 기울이신다. 우리는 그들의 ‘children’이다. “아더레이♡!”

▲화요일

매일 아침 모라투와 Y 앞 가로수에 물을 주는 것 이외에 일회성 외부 활동을 주로 하는 날이다. 9월의 화요일에는 특별한 만남,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회를 가졌다. 반가운 만남을 가졌던 이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유경 기자였다. 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언론사 몇 곳과 독일 언론사에 프리랜서 기자로 활약하는 분이셨다. ‘당당한 기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미래의 기자 선배들을 몇 번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의 기성 언론사 기자들과 다른 길을 걷는 언론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숨겨진 이면의 진실을 파헤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기자의 삶이다. 그런 면에서 그의 행보가 더욱 빛났던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 이런 기자의 역할을 간절히 그리고 절실히 기다리는 세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때문은 아니었을까.

스리랑카에 입국할 때, 거주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과 동시에 30일의 관광비자를 받았다. 비자 연장을 했다는 것은 어느새 우리가 이곳에 정착한 지 한 달여가 다 됐다는 의미였다. 예전에 Sampath한테 넌지시 그렇지만 강력하게 기차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었는데, 이번 콜롬보 나들이는 스리랑카 고속철도를 이용했다. 9시 30분 모라투와발 콜롬보행 기차였는데, 은행에 들렀다가 출발 5분 전이 돼서야 비로소 역에 도착했다. 기차표도 사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 기차 놓치는 것을 걱정하니까 Sampath이 던지는 시원한 대답, “기차는 늘 늦으니까 괜찮아!” 그래, 여기는 스리랑카다.



▲ 수요일

7시부터 모라투와 유일의 국립병원인 Diabetic병원에서 허브와 쌀이 들어간 차를 나눠드리는 활동을 했다. 허벌차를 직접 만들어서 가야하기에 이날은 6시 30분까지 모라투와 Y로 출근한다. 3기는 모라투와 Y와 집이 가까워 숙소에서 직접 차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동에 제약이 있어서 모라투와 Y의 마스코트, 오산드네 집에서 자야 라 뜨너 따따의 전폭적인 도움 아래 첫 번째 차 만들기에 나섰다. 드디어 “아유보완, 마게나마 루와니, 콜라캔더 본느!(안녕하세요, 루와니입니다, 허브차 드세요!)”를 외치는 시간이 됐다. 물론 스리랑카팀 ‘목청’을 맡고 있는 내가 왕따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몸소했다. 3기에 이어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였지만 병원이라는 곳이 유동인구가 특별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이런 모습은 생경하셨으리라. 웃음으로만 일관하던 분들이 먼저 내미는 차 한 잔에 행복한 미소를 되돌려 주셨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찾은 병원이었지만 이날 하루 아침만큼은 잠시라도 웃음을 드릴 수 있게 더 크게, 열심히 외쳐야지! “콜라캔더 본느!”

저녁에는 Youth Club 모임이 있다. 스리랑카팀이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참여한 모임에서는 스리랑카의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 경기가 있었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모라투와라는 지역에 대해 제대로 알자는 목적 아래 특강이 진행됐다.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는 싱할라를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내 귀의 모라투와’였다. 강의를 듣는 1시간 30분의 동안 제일 잘 들었던 단어이다. 다행히 강의 중간 중간에 통역을 해준 현지 친구가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은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인상적이었던 점은 특강에 임하는 이들의 태도였다. 스스로에게 자문했다. ‘한국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단순히 지명을, 위치를 아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온전히 익히는 것에서 출발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의 모습이 특히 아름다운 밤이었다.

▲ 목요일

스리랑카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통용되지만 어린 친구들과는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가 많다. 아산 Y 국내 훈련 때 기본적인 싱할라어 표현을 배웠기에 간단한 인사는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우리에게 Sampath 선생님과 함께하는 싱할라어 수업이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평소에 그는 한없이 막역한 우리들의 좋은 친구지만 싱할라어 수업 때는 역시나 더 없이 인자한 우리들의 좋은 선생님이다. 매주 월요일 라온아띠 회의 때마다 원로 위원들은 우리들의 싱할라어 실력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 그리고 하루빨리 싱할라어로 ‘일상의’ 대화를 하기를 희망하신다. 지극히 우리의 입장에서, 문자보다 그림처럼 보이는 싱할라어를 익히는 우리들에게 Nihal 할아버지는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한국어를 잘 했던 것은 아니다. 너희가 스리랑카에서 태어났다면 어땠겠니? 너희들은 잘 할 수 있다! 어렵다는 생각 말고, 천천히 익히렴.”

▲ 금요일

약 40명 정도의 친구들이 매주 Children Club에 참석한다. 스리랑카팀 역시 매주 이 모임에 참석해, 때로는 일원으로 때로는 보조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 시간에는 모두에 따라 자신들의 모듬 이름을 정하고, 무대에 나가 자신들의 모듬 이름을 온 몸으로 표현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극, 춤, 노래 등 다양한 모습으로 각기 다른 개성을 드러내는 아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아이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줬다. 두 번째 시간에는 모듬 대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리 제시된 주제에 따라 주장을 확실히 세우고 근거를 수집해 논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 토론에서는 단순히 주장 발표에 그치지 않고, 상대 모듬의 의견을 반박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견고히 하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다. 스리랑카팀 역시 ‘방과 후 교실’이라는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실제 토론자로 나서, 아이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기회를 가졌다.

드디어 스리랑카팀이 보조 교사로 활약하는 때가 왔다. 주체가 되는 첫 시간이었기에 고심 끝에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아산 Y 국내 훈련 때 꽃다지 선생님과 함께 한 전통놀이를 같이 했다. 흥겨운 노래가 절로 나오는 가운데 어느 순간 모두가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대는 언어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을, 서로의 웃는 얼굴과 밝은 웃음 소리가 더 큰 것을 말해주는 그 느낌을 아는가.

한국어 교실은 스리랑카팀이 특별히 애착을 갖고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한국어 교실을 찾는다. 현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한국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함께 한다. 개인적으로 가칭, 한국어 시험 준비반의 담당 선생으로서 지금까지 두 번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들의 강한 열망을 느낀다. 나에게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국어지만 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한가득 담고 있는 절실한 그 무엇이다. 더 큰 것을 주려는 과욕을 부리기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지난 두 번의 수업이 내게 준 마음이다.

▲ 토요일

모라투와 Y 태권도 수업에는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가 아닌, 모라투와를 지키는 태권소년 8형제가 있다. 나 역시 태권도를 왕따시 사랑하는 태권도인으로서 매주 태권도 수업 시간에는 가슴 벅찬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모든 국제 대회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모두 한국어이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 등의 국제 대회에서 선명하게 울리는 '차렷, 경례, 시작'이라는 한국어를 들을 때의 흥분처럼, 아이들의 명확하지 않지만 진지한 배움의 마음이 담긴 한국어 기합 소리는 너무 좋다. 내가 태권도를 사랑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태권도는 단순히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 단련과 동시에 예의를 매우 강조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예를 이곳의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정말 좋아하는 나의 어린 친구들에게 그 본연의 정신까지 함께 전달할 것이다.

오전의 태권도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는 모라투와 Y 내부의 각종 스포츠 시설에서 스리랑카팀 각자도 심신 단련의 시간을 갖는다. 배드민턴, 탁구, 포켓볼, 헬스장 등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나 캐롬이라는 현지 전통 놀이를 하는 시간을 통해 토요일 낮의 여유를 즐기곤 한다.

"Are you happy?"에 대한 대답은 하나다.
"Yes, I am!"



모라투와=강민지 기자
/smpkmj69@gmail.com

<광고>

**SL4와 떠나는 스리랑카 투어 1탄
다음 달 개봉박두!!!**



SL4 러브하우스 ♥



화장실-가장 걱정(?)되는 장소일 듯 한데요. 정말 넓고 쾌적해요. 물도 시원하게 팔팔 나오구요. 가끔 곤충 친구들과 같이 사용 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친구들도 예뻐보이네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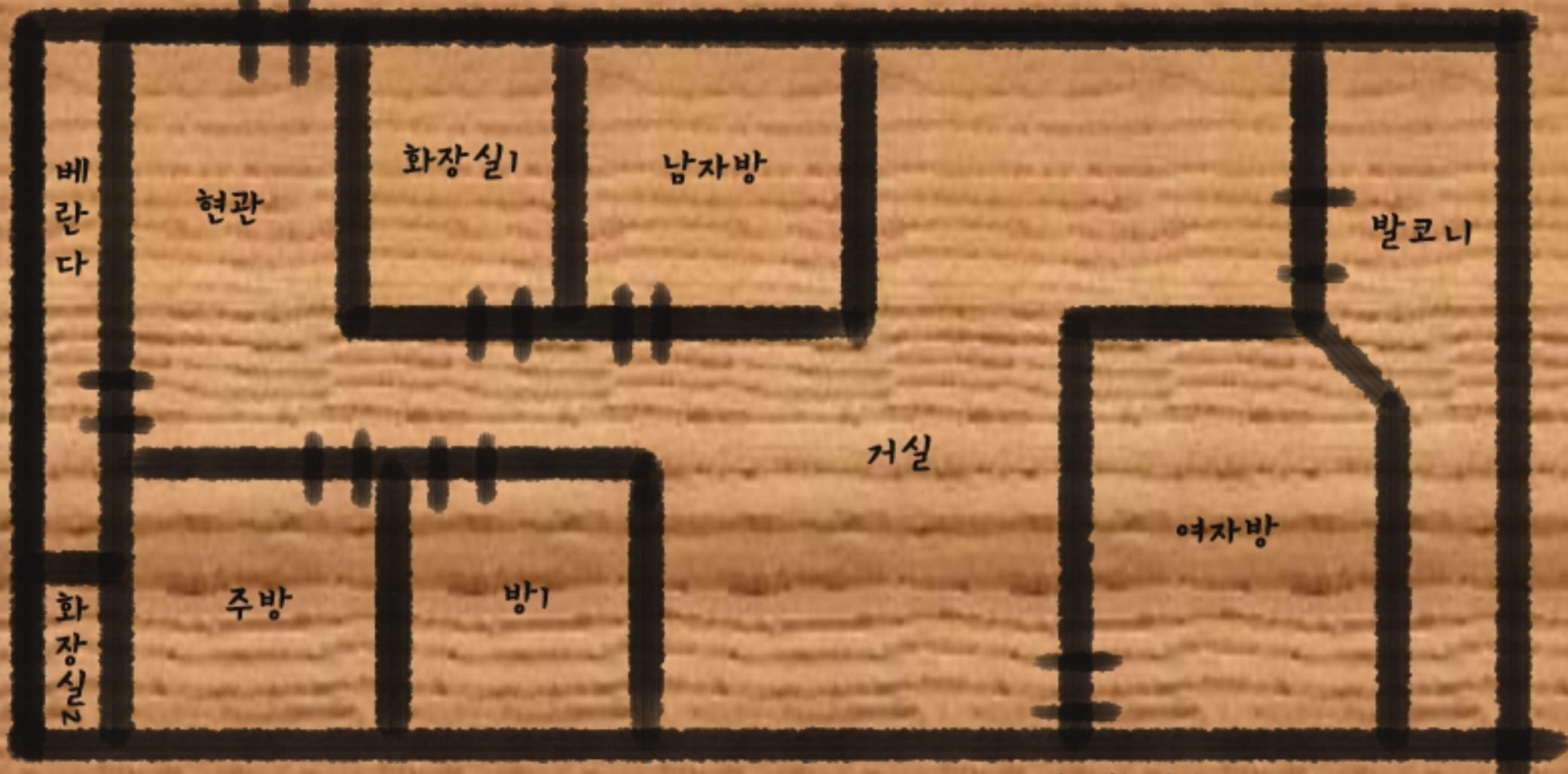


balconi-해가 지는 저녁이면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곳. 홍차와 함께 책도 읽고, 가끔은 밥도 먹는답니다. 정말 좋아요!!

현관-집으로 들어오고 나갈때 항상 거치는 곳.그래서 우리의 공동 물품이나 매일 챙겨야 할 물품들을 놓아두는 곳이에요.



남자방-여자방의 3분의 1... 그래도 충분하답니다. 저희는 잠만 자니깐요ㅋㅋ 작지만 지켜주고 싶은 공간!! 남자방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그렸답니다..ㅠㅋㅋ



주방-많이 궁금하시죠?! 주방은 넓고 깨끗...했었죠;;ㅋㅋ 지금도 깨끗하답니다. 나름!! 냉장고도 큼직하고 불편한 게 없는 곳이에요. 남자들이 더 자주 있게 되는 곳...이 되었네요. 허허ㅋㅋ



방-햇벌이 가장 잘 드는 곳이에요. 다섯 개의 캐리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답니다. 4달 후에나 이 녀석들이 움직이겠네요.



거실-우리의 완소 공간!! 다섯 명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입니다. 식당이자, 회의장이자, 커피숍이자, 호프집(맥주 딱 한 잔씩!!) 이랍니다.ㅋㅋ 라온아띠 4기 30명이 전부 누워도 3명 더 잘 수 있어요~ 실장님, 간사님도 오셔용 :)



여자방-넓고 시원하고 별도 잘들고...남자방보다 3배나 넓은 그 곳!! 하지만 참 어지럽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사는 세상은 알수 없답니다.ㅋㅋ 그래도 그들은 SL4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스리랑카가 라운아띠에게...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스리랑카가 아닌 스리랑카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라운아띠 다섯 명은 어떨까? 3주 동안 가장 많이 만났던 스리랑카 현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라운아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서로간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생각과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언제나 친절하고 잘 웃어주는 스리랑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바란다.

“What do you think about RaonAtti?”



MIRAK 식당 'DILIB' 아저씨.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친절하고 잘 웃는다. 한국과 스리랑카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를 많은 대화를 통해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나라이므로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라며 말씀 해주셨다.

점심 먹으로 갈 때마다 항상 첫 마디가 'Sri Lanka is good?'이라고 물어보시며 싱할라어를 알려주시는 Dilib 아저씨. 3기 만큼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어요. :)

라운아띠 Korean Class '니가다' 씨.

'한국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한국 친구들과 좋은 친구 관계를 맺고 싶다.' 한국어 교실에 오시는 아저씨. 한국어에 대한 열정으로 정식 수업 시간 외에도 YMCA에 자주 오셔서 한국어 공부를 하신다. 10월에 있을 한국어 시험에 통과하면 한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실 예정인 아저씨.. 한국어 클래스를 통해 한국어 시험에 꼭 통과하셔서 한국에서 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라투와 YMCA 사무총장이자 라운아띠 코디네이터 '쌘빳'

'라운아띠는 스리랑카를 배우러 왔고, 모라투와의 지역 사회를 배우기 위해 온 만큼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라운아띠 다섯 친구들은 모두 좋은 친구들이다. 라운아띠는 나의 모든 일을 도와준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관리해 주시는 현지 코디네이터 쌘빳. 정말 친절하고 장난 잘 치는 사랑스러운 우리 코디네이터다. 나이는 우리랑 비슷하지만 이곳 모라투와 YMCA 사무총장 역할까지 해내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쌘빳 We love you ♥!!



모라투와 YMCA Youth Clum 멤버 '사무뜨'

'처음 나에게 다가와서 '아유보완(안녕하세요)'이라고 인사해 주어서 고맷다. 함께 당구치고 대화도 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우리 나이도 비슷하고 한국어에 관심도 많은 친구다. 앞으로 한국어 클래스와 Youth club 활동을 통해 자주 만나게 될 사무뜨.



4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리랑카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고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우리 라운아띠와의 인연을 맺었지만 우리에게 대한 생각이나 우리를 향한 마음이나 우리에게 대한 기대감은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좋은 인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이곳 사람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살다갔으면 좋겠다. 글/김보람(히루니)

SL4의 첫 사진첩

추울~발!!



세
마
리
크
드
애
벌
레

첫
이
름
스
리
랑
카

민지-루와니
보람-히루니
동민-다밋
상진-수퐁
소현-사그리



첫 만남이었지만,
오랜 친구 처럼...



첫 느낌은...요정도?!



나무에 시원하게 물 주기



남들 하는건 다 해보고ㅋㅋ



보람이는 발...만
참 예뻐요♥



여기斯里랑카
민폐없이
에헤라디야?

페인트 칠
하랬더니
.....짜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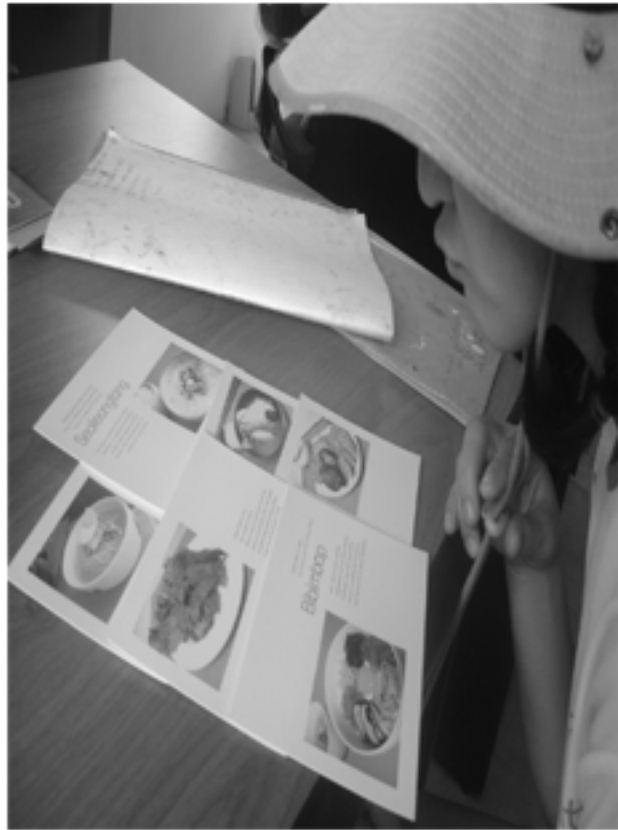


언제 다시 먹을 지 모를 추석 특식ㅠ



이렇게 우리는 斯里랑카에서의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

SUPUN 의
맛을 찾아서
in 스리랑카~



안녕하세요. 라온아띠 4기 스리랑카팀 SUPUN(한상진)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것 같네요.

왜냐구요??

이 글을 읽다보면 입 안에 군침이 가득 해 질걸요~..^^
글쎄요.. 월간 보고서를 준비해가면서 '내가 약 20일동안 뭘에 제일 관심이 있었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심의 고심을 거쳐 제가 내린 결론은 '캐머(음식)'.
스리랑카로 출발하기 전에 3기 선배님들이 탄수화물만 많이 섭취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전 그런 걱정을 꺼안고 스리랑카에 왔을 때, 모든 음식들이 낯설고,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웬걸? 스리랑카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왜 탄수화물만 많이 먹고
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다니까요.^^
자! 이제 저랑 같이 입맛 다실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GO~

제가 먼저 소개 할 곳은 'MORATUWA MAKET' 입니다. 제가 처음 현지 코디
랑 4일치 장을 봤던 곳이에요. 처음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처럼 바나나
를 다발로 파는게 아니라 나무를 잘라서 무게단위로 팔아요. 그리고 '망고'는
비싸서 망고주스밖에 사먹지 못했던 우리가 드디어 부담 0%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마다 1주일치 식량을 사러 가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서
이젠 서로 갈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일과 해산물 채소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정말 좋아서 MORATUWA 사람들도 여길 많이 찾나봐요.
이젠 RUWANI(강민지)와 같이 장을 보러 가면 RUWANI의 친화력으로 과일 살 때,
한개 짝 주욱~ 더 넣어 주신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았던,
'情' 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에게서 정말 포근한 장소입니다.



< MORATUWA MAKET >



< MJRAK. CHINESE FOOD COURT >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맛집은 MJRAK 이랍니다. 저희는 점심에 3일은 중국식
나머지 3일은 스리랑카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MIRAK은 저희의
중국식 음식점입니다. "NASIGORENG" 저희는 주로 이것만 먹어요. 정말 맛있
어요. 다들 이거 먹으면서 "이러면 안되는데.." 라는 말을 계속 내뱉으면서 손
가락을 놓을 수가 없게 만드는 맛을 가진 녀석이죠.^^
여기 주인 아저씨는 우리 기수 이전부터 라온아띠들을 만나셨다고 해요.
우리가 밥을 사러 가면 정말 반갑게 맞아주면서 매번 똑같은 걸 물으세요.

"LARGE ONE? EXTRA EGG TWO?"

언제나 우리의 대답은 똑같지만 말이죠.

"YES WE WILL"

여긴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혹시 MORATUWA에 오신다면
여기를 꼭 들리세요,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이번에 소개할 곳은 "747" 이라는 스리랑카 전통 FOOD COURT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곳의 입맛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선입견 때문이라는 걸 얼마가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식욕이 그건 선입견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 전 스리랑카에 가면 커리만 먹는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을 커리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1주일 지나도 커리는 언제 먹는거야' 하면서 투덜거려던 게 기억나네요. 그 말을 들은 코디네이터 SAMPATH이 그 특유의 웃음을 날리며,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다 커리야"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이미 저는 1주일에 적어도 3번은 커리를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그런 투정을 부렸으니까요. 코디네이터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하하.. 특히 "달, 짭"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지요. 조금 SPICY 하지만요. 이젠 여기 일하시는 분들과 친해져서 정답게 저희의 이름도 불러주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세요. 아~ 내일이면 여기서 밥을 사와야 하네요.~ 벌써부터 군침부터 도네요.. ^^



< SRI LANKA FOOD COURT 747 >

드디어 소개할 때가 되었네요. ^^ "BRIGHT HOUSE BAKERY" 여긴 제 개인적인 음식 취향이 많이 반영된 곳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아침에 식사를 못하게 될 때, 어디 없을까 하고 헤매이던 중 사막의 오아시스였을까요.. 아무튼 저에게 그런 곳이랍니다. 아침부터 갓 구워 나온 빵의 냄새가 아직도 아른거리네요. 되도록 아침은 집에서 먹고 가자는 것이 우리팀의 룰이지만 가끔씩 그 룰을 이탈해서 이 빵집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아침마다 저의 머리속을 지배한답니다.

혹시 어떤 종류의 빵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파끈파끈한 빵 사이에 소시지가 있는 걸 좋아하는답니다. 어떤 빵을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MORATUWA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꼭 아침에 "BRIGHT HOUSE BAKERY" 들리셔서 좋아하는 빵과 WITH 밀크티를 꼭!!! 이 글을 쓰면서도 벌써 부터 입맛이 다셔지네요.. 아마도 이 글을 마치면 빵집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



마지막이네요 벌써..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안 물어 봐도 알겠죠?? 빵집이 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였다면 지금 소개할 "ROOTS"는 깊은 산 속의 맑은 약수터같은 곳이었어요. ^^ 그럼에서 보면 알수있듯이 여기는 생과일 주스 전문 가게예요. 왜 이 가게가 선택되었냐고요? 네 맞아요.. MORATUWA에는 많은 생과일 주스 가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요? 과일을 통째로 갈아 주세요. 다른 곳은 과일을 아끼고 물의 비율이 많아서 과일주스가 밍밍할 때가 많지만,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임주스를 먹을 때는 시큼함에 아주 뒤로 넘어져버릴 정도니까요.. ^^ 저희가 있는 YMCA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먹고 아니면 집에 가면서 스리랑카 과일의 맛을 한껏 느끼면서 돌아간답니다. 'ROOTS' 에 있는 과일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침이 꼴깍~ 라임주스, 파인애플주스, 아보카도주스, 망고주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죠! ^^ 내일 당장 밥 먹고 뛰어가야겠어요.

퍼즐로 알아보는 스리랑카

*정답을 모두 적어서 아래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1명을 선발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011년 2월 7일 이후에 일괄 배송합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아... 퀴즈는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

* 자체 제작 100% 퍼즐

				3								
	1											
2												
												13
	5		9									
4					10			12				
								8				
				6								
					7		11					

가로 풀이

- SL4가 매주 수요일마다 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드리는 Herbal Drink를 싱할라어로 부르려면? *루와니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외치죠. "0000 본느, 0000 본느"
- 스리랑카 전통 놀이 중 하나로, 포켓볼과 알카기를 섞어 놓았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임이랍니다
- 가장 기본적인 스리랑카 인사말. '안녕하세요'의 싱할라어
- '엄마'를 싱할라어로 말하면?!
- SL4의 주요 점심 메뉴. Dilib아저씨가 게시는 'Mirak' 식당의 단골 메뉴랍니다 :)
- 스리랑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야구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달라요
- '친구'를 싱할라어로 말하면?!
- KB와 한국YMCA가 함께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의 단체 이름은?!

세로 풀이

- 스리랑카의 수도는?!
- '사랑해요'를 싱할라어로 말하면?!
- '이름'을 싱할라어로 말하면? '제 이름은 다맛입니다.' = '마제 00 다맛.'
- Very의 뜻을 갖고 있는 싱할라어. 예를 들어 'Thank you very much' = '00 이쓰뚜띠'
- 스리랑카의 한 때 가장 큰 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유명한 관광지예요. 하나의 돌로 이루어진 깎아놓은 듯한 절벽...이곳은 어디 일까요?!(인터넷 검색 찬스 가능)
- 스리랑카의 화폐 단위
- SL4가 머무르고 있는 스리랑카의 도시
- '감사합니다'를 싱할라어로 말하면?!

SL4 주소

68, New Galle Road, Moratuwa, Sri Lanka
Moratuwa YMCA - RaonAtti

스리랑카에서 보내는 편지

오기로 뚝뚝 뭉치길 바라는 5기들에게.

안녕하세요, 라온아띠 4기 스리랑카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허소현이에요.
라온아띠 5기 지원서를 쓰실 때 어떠한 생각으로 쓰셨어요? 제가 지원서를 쓴 지도 벌써 4개월이 다 되었네요. 전공은 다양하고, 사람의 개성도 다양한 분들이 모일 것 같아요. 저는 벌써부터 우리의 생활을 이어 받을 분들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스리랑카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대중매체에서는 흔히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봐 보세요, 여기 이곳, 스리랑카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나라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가는 게 마냥 아쉬운 라온아띠 SL4 한 달 동안의 느낌을 들려 드리려고 해요. Are you ready?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고개를 갸우뚱~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고개를 상하로 흔들지만, 여기는 호의적인, 그리고 YES 라는 것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이에요, 처음 여기 와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잘 구분이 되질 않더라구요, 좌우로 흔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호의적인 반응이 있을 때, 제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요. 그래서 약간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교통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가 있어요. 우선 이 나라는 운전석이 오른쪽이라는 점, 길가에 나가서 손을 흔들면 가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태워주기도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려요. 사람이 모두 다 타기도 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버스를 탈 때는 재빠르게 타야 해요. 여기 버스에는 한국에는 없는 버스 도우미 아저씨가 있어요. 그 분에게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으면 되구요, 운전 기사님 옆으로 내리기 때문에 가벼운 눈인사, 그 정도의 센스는 다들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인데, 이곳의 쌀은 한국 쌀처럼 찰 지지가 없어서 잘 뭉쳐지지 않는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 빠리를 외치고, 혼자 밥 먹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곳은 혼자 밥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대체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입니다.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곳은 오른손을 사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손으로 먹는다는 것에 놀랐지만 일단 세 손가락으로만 밥 먹기를 시도했어요. 이때 조언을 들은 것이 밥 먹을 때 손가락을 아끼지 말고 다 사용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숟가락 대신에 오른손 손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5개월이 지난 후, 한국에 가서도 손을 이용해서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는 것 중요하겠죠? 화장실 변기 옆에는 휴지 대신에 샤워기가 항상 달려있어요. 오른손은 음식 먹을 때, 왼손은 화장실 뒤처리 할 때 쓰는 손입니다. 화장실 뒤처리를 하고 변기 옆에 달린 샤워기로 씻고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도는 못 해보고 있답니다. ^^;;

총 한 달 동안 제가 처음 스리랑카라는 낯선 곳에 와서 느끼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적어 보았어요, 물론 이 글로 모든 것을 전달하지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느끼길 바라는 저의 생각을 담았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아유보완 ~ ♥

SL4가 처음...

만남 사람들



with '정은범' 선교사



'이유경' 기자



YWCA 인턴 친구들



'최기출' 주스리랑카 대사



'유명한' 드라마 촬영감독



'유명한' 영화 배우



'반둘라' 조각가



배우이자 작가
'사짓찬드리'



비자연장을 도와주신
이민국 담당 직원

만든 보고서 (주간 보고서)



1st week



2nd week



3rd week



4th week

*b 와 YMCA 가 함께하는 RaonAtti

꾸을



Made by SL4

정가 500루피(홍정 가능카드)